



문정호 | 환경부 정책실장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요람! 자연공원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가는 계절에 자연공원 수목의 푸른빛은 각양각색이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어울려 갓 돌아 오른 새 잎새는 옅은 파랑, 진한 파랑, 녹색, 하늘색 등 너무 다양하고 예쁘고 아름다워 새삼 자연의 경이를 느끼게 한다.

국립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은 사계절 아름다움과 수려한 자연 경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protect and preserve)하면서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향유(benefit and enjoyment)할 수 있도록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도시 인근에 조성된 도시공원과는 구별된다.

세계 최초 국립공원은 약 130여 년전인 미국 Yellowstone 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은 1,400여개에 이른다. 우리 나라의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76개소(국립 20, 도립23, 군립 33)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우리 나라의 자연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하며 1967년 지리산을 제1호로, 1988년

월출산을 제20호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원의 형태로는 설악산 등 16개의 산악육지공원, 다도해 한려해상 등 2개의 해상공원, 태안해안공원과 사적공원인 경주국립공원으로 분류된다.

최초의 자연공원 정책은 당시 건설부에서 출범하여 1980년 자연공원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보다 충실한 자연공원 정책이 추진되었고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하여 공원관리청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었고, 그 후 주관부처가 내무부를 거쳐 1998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명실상부한 자연공원 정책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자연공원의 정책 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생명의 요람』을 목표로 자연생태계 보전 우선의 원칙, 공원자원 훼손 예방의 원칙,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 확립의 원칙, 국민참여와 파트너십의 원칙에 의거 공원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하여는 공원자원의 통합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한 공원관리 조직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사유 토지의 공유화 추진 등 자연공원 제도 개선, 탐방관련 정보 서비스

스 제공 등 광역 탐방정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자연친화적 탐방문화 정착,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원시설 설치 운영 및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행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금년도 중 중점 추진하는 자연공원 정책 방향은 국립공원의 자연보전기능 강화 및 탐방문화의 선진화 추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 및 규제개선책 마련을 위하여 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획일적 층고제한 개선방안, 자연공원내 도로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보전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월악산에 산양의 증식 복원사업 추진 및 국립공원내 멸종 위기종 복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탐방로 정비 및 다양한 생태이동 통로 조성 등 서식환경 개선사업 추진,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억제에 위한 사전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자연친화적 공원관리 기반 확충을 위하

여 지리산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훼손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유발시설 및 경관저해 시설물이 설치된 핵심지역내 사유지 우선 매입,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송추지구내 상가 이주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이다.

넷째,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반을 7개 반으로 확대 개편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탐방객 계도 안내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한편,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탐방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사이버 국립공원종합정보관을 구축 운영하며, 테마별 자연학습 시설(32개소), 탐방안내소(4개소), 자연관찰로(11개소) 등 탐방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공원관리 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통하여 국립공원의 자연보전기능 강화 및 탐방문화 선진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연공원을 포함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과 더불어 국립공원이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